

# 목포·강진·해남 평화당 약진, 광양·장성 무소속 선전

## 지방선거 D-7 기초단체장 판세분석

전남 기초단체장 선거는 민주당 대 비민주당 대결구도로 펼쳐지고 있다. 당초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의 고공 지지율에 힘입어 민주당 압승이 점쳐졌지만, 공천 잡음과 독주에 대한 견제심리가 작용하면서 전남 서남부벨트를 근거지로 '민주당 역풍'이 거세지고 있다.

목포·강진·해남·고흥은 민주당과 평화당 후보가 호각지세를 이루고 있다. 장흥·보성·광양·장성은 민주당과 무소속 후보간 경쟁이 치열하다.

민주당은 연일 문재인 대통령의 높은 지지율과 정치적 연인 등을 강조하며 "힘 있는 여당에 표를 몰아줘야 지역발전이 있을 수 있다"고 호소하고 있다.

야당과 무소속 후보들은 '비민주당' 기치를 내걸고 "대통령 지지율에 취해 오만한 공천 파행을 빚은 민주당을 견제하고, 독주·독점의 폐해를 막기 위해 야당을 지지해달라"고 목소리를 높이며 맞붙고 있다. 목포시장 선거는 재선에 도전하는 평화당 박홍률 후보와 안도군수 3선 출신의 민주당 김중식 후보가 양강구도를 형성하고 있다.

박지원 의원 지역구로 수성하려는 평화당에 맞서 문재인 바람을 타고 탈환을 내건 민주당의 공방전이 치열하다. 김대중 전 대통령의 정치적 고향이라는 상징성도 관심을 높이고 있다. 이 때문에 양당 지도부도 총력 지원유세에 나서고 있다.

평화당 지도부는 지난 4일 목포에서 합동유세를 갖고 지지를 호소했다. 목포 평화광장에서 열린 이날 합동유세에는 조배숙 평화당 대표를 비롯해 박지원 의원 등이 참석했다. 앞서 민주당에서는 추미애 대표가 지난 달 19일 목포를 찾아 지지를 호소했고, 신경민·송영길 의원 등이 차례로 지원유세에 나서며 김중식 후보 지지를 호소했다.

몇 차례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도 두 후보가 앞지락 뒤지락 혼전을 벌여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상황이다. 지역정가에서는 투표율이 당락을 좌우할 변수라고 전망한다. 그동안 지방선거에서 목포 투표율은 60%를 넘지 못했다. 투표율로 유·불리를 따지는 이유는 지지계층 때문이다. 박 후보는 60대 이상 계층에서 김 후보는 20~30대 계층에서 상대적으로 지지율이 높다.

## 공천 잡음·독주 견제 심리 작용에 전남 서남부벨트 '민주당 역풍' 신안은 무소속 후보끼리 2강 구도

강진군수 선거는 민주당 이승욱 후보와 평화당 광영체 후보간 경쟁이다.

민주당 경선에서 강진원 군수가 패널티를 받으면서 낙마, 이승욱 후보가 공천장을 거머쥐었다. 치열한 경선 과정에서 민주당의 약재로 작용하고 있다. 막판 고소고발전까지 펼쳐지면서 당원의 분열을 가져왔다. 반면 광영체 후보는 "재선 없이 4년만, 무소속으로 봉사하겠다"고 공약해 유권자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 후보의 선거법위반 혐의 수사도 선거 막판 약재로 작용할지 주목된다.

해남군수 선거는 민주당 이길은 후보와 평화당 명현관 후보가 1%대 접전을 벌이고 있다. 최근 목포MBC가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명 후보는 41.8%, 이 후보는 40.2%를 기록, 박빙의 승부를 펼치고 있다. 고흥에서는 민주당 박병동 후보와 평화당 정종순 후보가 맞붙었다.

광양과 장성에서는 현직 프리미엄을 등에 업은 무소속의 현직 단체장들과 민주당 후보간 피말리는 선거전이 전개되고 있다.

광양은 현직 시장인 무소속 정현복 후보와 민주당 김재무 후보가, 장성은 현직 군수인 무소속 유두석 후보와 민주당 윤시석 후보가 대결하고 있다. 이들 지역은 무소속이지만 현직 프리미엄을 앞세운 정 후보와 유 후보가 한발 앞서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장흥과 보성은 민주당 바람에 맞서 무소속이 선전하고 있다. 장흥군수 선거는 민주당 박병동 후보와 무소속 정종순 후보가, 보성군수 선거는 민주당 김철우 후보와 무소속 하승환 후보가 치열한 선거전을 치르고 있다.

신안군도 민주당 후보가 열세지역으로 좁힌다. 섬으로 구성된 지역 특성상 선거운동의 한계 때문으로 분석된다. 신안군수 선거는 5파전이다. 현·전직 군수인 무소속 고길호 후보와 박우량 후보가 2강을 형성하고 있다.

/박정욱 기자 jwpark@kwangju.co.kr



지방선거 거소투표 시작 6·13 지방선거를 8일 앞둔 5일 오후 광주시 서구 노엘실버타운에서 어르신들이 거소투표를 하고 있다. /최현배 기자 choi@

## 민주 "기초단체장 절반 목표...PK서 의미 있는 진전"

### "사전투표율 20% 넘으면"

### 여성의원 5명 파란머리 염색"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사무총장은 5일 6·13 지방선거와 관련, "기초단체장 100곳 이상을 적어도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모두 226곳의 기초단체장이 선출되는 만큼 민주당이 '기초단체장 절반 승리'를 목표로 제시한 셈이다.

이 총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광역단체장과 국회의원 재보선은 우리가 갖고 있는 분석보다 더 많은 성과가 있을 것 같고, 우리가 총력을 기울이는 것은 기초단체장 선거"라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이 총장은 "현제 수도권과 부산·경남(PK) 지역에서 의미 있는 진전을 보이고 있다"며 "우리 당은 영남권 승리를 통해 남은 지역구도를 깨고 모든 지자체 시스템을 변화시키는 계기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서울 구청장 석권 가능성에 대해선 "그것은 희망"이라면서도 "상당 부분 새누리당이 2006년에 거뒀던 성과 정도는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자신했다. 지난 2006년 당시 제4대 지방선거에서 새누리당의 전신 한나라당은 25개 서울 구청장을 싹쓸이

했다.

그는 호남권에 대해서도 "광역단체장과 보궐선거의 경우 대부분은 저희가 무난히 승리할 것"이라고 점쳤고, 강원지역의 경우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좋은 상황"이라며 "접경지역에 대해 고민을 많이 했는데 지지율이 상승해 의미있는 성과를 낼 것"이라고 분위기를 전했다.

PK를 포함한 영남권 현장 분위기에 대해선 "예전보다 분위기가 확실히 좋아지고 있다"면서도 "여론조사에 잡히지 않는 수치, 자기 의사를 표시하지 않는 분위기가 때문에 지역적 사정에 따라 투표 결과가 다를 수 있어 방심하지 않고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재보선 압승이라는 지상파 방송3사의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선 "부담스러운 형편"이라며 "그 지역의 절반 정도는 압승할 것이라고 보고, 그렇지 않은 지역도 최선을 다하면 좋은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했다.

한편, 민주당은 투표율 제고를 위해 사전투표율 20% 이상을 달성하면 진선미 원내수석부대표와 유은혜 의원, 백혜련 대변인과 등 5명의 여성 의원이 머리를 파랗게 염색하고, 본투표율이 60%를 넘기면 사무부총장단 남성 의원 5명이 머리를 파랗게 물들이는 '2060 파란 프로젝트'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박지경 기자 jkpark@kwangju.co.kr

## 문대통령 보훈가족 초청 오찬... "보훈 가치 높여갈 것"

문 대통령은 현충일을 하루 앞둔 5일 국가유공자 등 보훈 가족을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을 함께 하며 "국민 눈높이에 맞는 보훈심사가 되도록 하고, 국가와 국민을 위해 희생한 분들과 가족이 억울함과 서러움에 눈물 흘리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보훈은 국민 마음을 하나로 모으고 강한 국가를 만드는 주춧돌"이라며 "나라다운 나라는 국가유공자와 보훈 가족이 자부심을 가질 수 있을 때 완성된다는 게 대통령으로서 저의 확고한 소신"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보훈저를 장관급으로 격상하고 보훈 예산도 대폭 늘렸다. 보훈 보상금부터 2조원 규모로 마련했고, 참전용사의 무공수당과 참전수당을 역대 최고 수준으로 인상해 올 1월부터 23만명의 참전용사에게 지급하고 있다"며 "한 분이 라도 더 살아계실 때 정성을 다한 보상과 예우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다"고 언급했다. 또 "보훈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보훈대상자 한 분 한 분에

게 필요한 맞춤형 복지를 제공하겠다"며 "마지막 가시는 길까지 영예를 지킬 수 있게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연고가 없는 국가유공자까지 품격 있는 장례를 하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문 대통령은 "국가와 국민을 위한 희생이 얼마나 숭고한지 그 가치를 일깨워 주신 분들의 유족을 특별히 모셨다"며 "2002년 제2연평해전의 활동 현 중사는 마지막까지 방아쇠를 놓지 않고 서해를 지켰고, 국가는 전사자로서의 명예를 드리기 위해 특별법을 제정했다. 국가가 마땅히 해야 할 의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세월호 아이들을 구하다 돌아가신 고창석·전수영 선생님은 순직 공무원보다 더 예우받는, 순직 군경으로 예우받게 됐다. 해경의 해난구조 또는 인명구조와 같은 희생을 했기 때문"이라며 "교육자의 참다운 모습을 보여주신 두 분께 국가가 마땅히 해야 할 예우"라고 말했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 기억을 걷는 시간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역사적 사건과 추억하는 일상이 그림책과 만나는 전시

어린 날 시간여행  
▶ 특별전시장 (3층)

故흥성찬 작가의 방  
▶ 작가실 (3층)

줌인줌아웃  
▶ 5.0갤러리(1층)

기억의 힘  
▶ 느끼실(3층)

2018. 4. - 7. 도슨트 예약 운영  
문의전화 \_ 062-960-6822, 6811